



R&D와 미래예측으로 시장을 선도한다

종합배관전문회사를 향한 심 없는 열정, (주)AJS

배관 이음쇠 관련 4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온 (주)AJS. 그러나 이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보다 뛰어난 제품과 시장을 열어가며, '미래산업을 주도하는 제조업'의 밝은 미래상을 만들어 가는 열정 컴퍼니, (주)AJS의 땀내 나는 현장으로 들어가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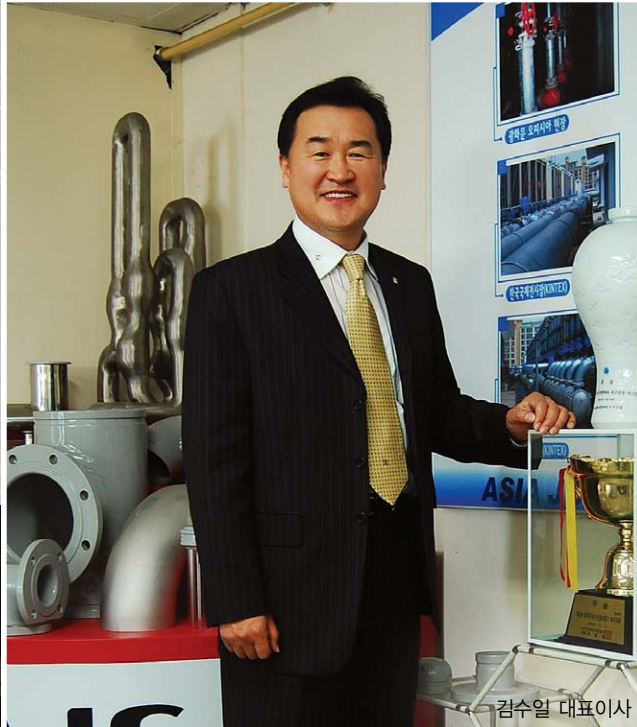


창조적인 변화로 성장의 폭을 넓히다

시원스레 뚫린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도착한 (주)AJS의 여주공장. 이 지역에서는 소문난 알짜 기업이라서 그런지 기업을 안내하는 문구가 먼저 맞이한다.

(주)AJS는 1965년 현대공업사로 출발, 1989년에는 코스닥에 상장하며 배관 이음쇠 분야 최고의 베테랑으로 발전해 온 기업. 초기엔 용접용 배관 이음쇠에 주력했지만 용접용의 부가가치가 낮아지고 우리나라 배관 환경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하면서 시장에서 요구되는 퀄리티를 반영할 수 있는 선진공법을 찾아 R&D에 주력했다고 한다.

수차례에 걸쳐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과, 조인트 방식이 대인임을 인식하게 되면서 일본 다이요 조인트와 기술제휴를 통해 아세아조인트라는 브랜드의 조인트를 개발할 수 있었고 점차 시장을 넓혀가기 시작한 것이다. 사명까지 아세아조인트로 바꾸고 시장을 선도하던 중, 2005년 김수일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



글로벌화에 앞장서는 회사의 비전을 채택하고자 사명을 다시 (주)AJS로 변경하게 된다.

“사명을 변경한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세아라는 이름이 글로벌 시대에 뒤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을 개선하고, 우리회사의 사업 분야를 배관 이음쇠뿐만 아니라, 배관 관련 토털 시스템 업체로 넓혀가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김수일 대표가 토털 업체로 변신을 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기존에 배관 관련 업체들이 한두 개의 주력상품만으로 시장을 만들어 왔지만, 앞으로는 중국 등 주변시장의 압력이 거세지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토털 업체를 지향해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동시에 꾀하려는 것이다.

청정한 물을 누수 없이 공급하는 것이 목표

(주)AJS의 배관 이음쇠는 고속철도, 롯데마트, 금천구청, 영종도 상수도, 성남시 상수도 등 여러 배관 시설에 사용되고 있다.

주력제품으로는 범용적인 용접 관이음쇠와 조인트를 들 수 있다. 범용적인 용접 시 관이음쇠는 회사 설립 초기부터 생산해 오던 제품으로, 40년의 기술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이즈의 제품이 출시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타사 제품들은 사이즈가 거의 한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주)AJS는 다양성을 충분히 확보하여 차별화시키고 있다.

조인트의 경우, 국내에서 직접 개발해 독자적인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는 (주)AJS가 유일할 정도로 노하우가 뛰어나다. 상수도 분야에 조인트를 실제로 적용하는 것도 (주)AJS가 처음인데 이와 같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상수도 관련 시장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특히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인 NEP를 획득해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인정받은 후 지자체를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시장을 확대시키는 중이라고. 상수도 배관은 용접식으로 할 경우 내부부식 문제 등이 발생하는데, 조인트 방식은 무용접이라서 부식이 발생하지 않아 내진설계에 적합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우리 회사가 상수도 사업에 있어서 포커스를 두는 부분은 청정한 물을 누수 없이 원하는 곳까지 배달·공급하는 것입니다.”

맑은 물 공급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식이나 누수의 문제를 줄일 수 있어 지자체 등 구매업체의 반응이 좋아 매출이 40%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김수일 대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제조업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한다. ‘제조업이 강한 나라가 선진국’이라며 제조업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재차 강조하는 김 대표. 자신이 과거 증권맨으로 쌓은 노하우를 갖고 제조업을 인수한 것도 그와 같은 믿음 때문이라고 한다.

“초기 사업을 시작할 때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결코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조업의 힘을 믿습니다. 현장에는 늘 땀과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들의 기술과 노력을 알아주고, 그들은 저의 비전을 믿고 따라오기에 더욱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임 후 3년간 지난 40년 역사에 버금가는 급격한 성장을 이뤘고 있는 김수일 대표는 (주)AJS가 국내를 대표하는 배관전문기업으로 장수하는 업체가 되어 주주 및 직원들에게 많은 것을 돌려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직하게 일하고,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그들에게 진정한 마케터더라는 말이 잘 어울린다. ☎